

발표일 : 2015년 7월 31일



최근 5년간(2010~2014년) 8월 상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중순에는 남해서부와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남해상과 동해중부,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0~2014년) 8월 상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중순에는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남해상과 동해중부해상,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서해는 8월 전 기간에 걸쳐 파고가 낮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0~2014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8월 30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8월 31일에 96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8월 30일에 412 cm, 동해의 포항은 8월 30일에 4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해양사고 빈발 시기(767척, 연중 제일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 태풍 내습기 시작으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사고 증가
- 하계휴가 시작으로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어업기상

- 8월의 수온은 동해·서해가 평년에 비해 1℃ 정도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가 1℃ 내외의 낮은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예상 수온 : 동해: 20~25℃ , 남해 : 21~25℃, 서해 : 23~28℃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황

해황

▶ 8월의 해상 정보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미만), 매우높음(3.0m 이상)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0~2014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0~'14년) 8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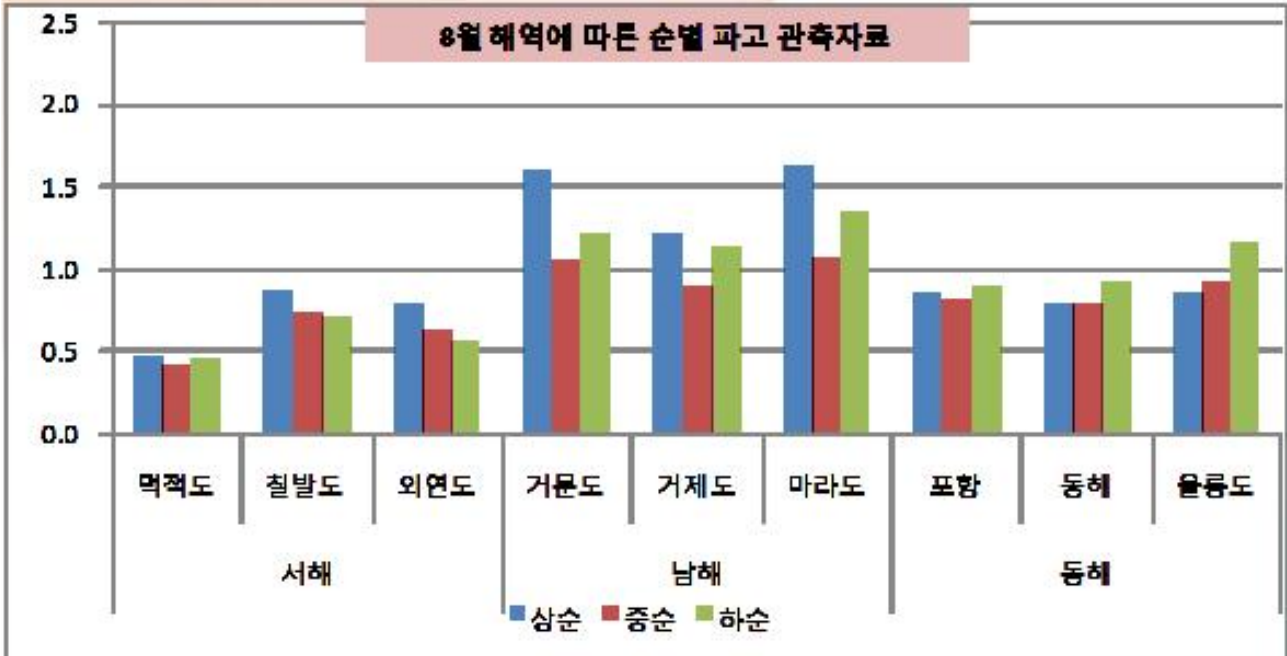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0~2014년) 8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8월의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동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순별로 살펴보면, 상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중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제주도해상(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남해상과 동해중부해상(동해, 울릉도),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8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도(마라도)로 1.63m(상순)이었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 최근 5년 및 2014년 8월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8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1.4일로 전월(7월 평균 1.1일)에 비해 증가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중순(0.6일)에 비해 상순(1.9일)과 하순(1.8일)에 많았음. 지난해(2014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평균 3.6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4일)보다 많았음. 최근 5년간 8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면바다로 총 40일이었으며, 동해중부앞바다에서 8일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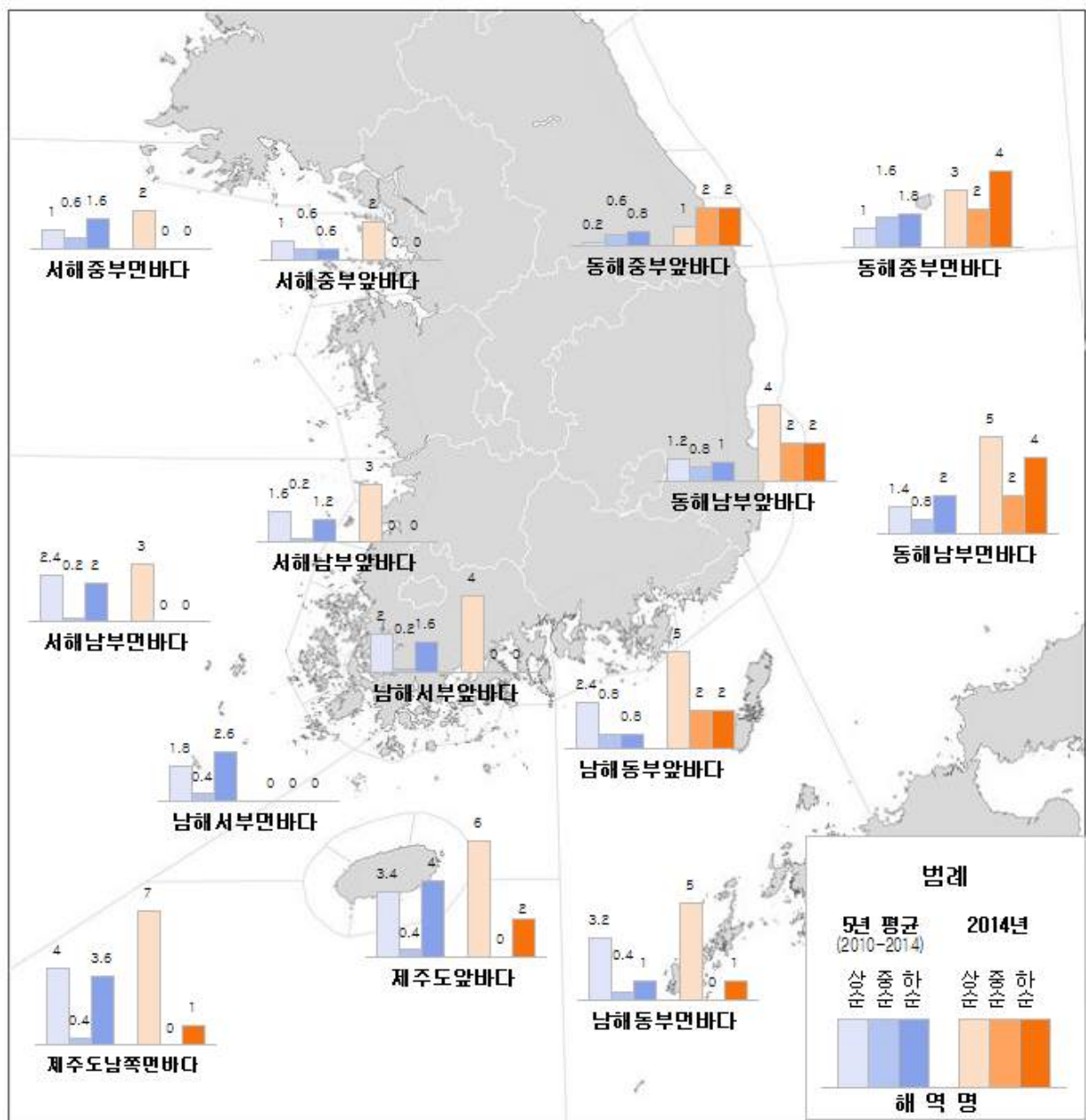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0~2014년) 및 2014년 8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 2013년 8월의 해황

2013년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해역에 걸쳐 남~남서풍 계열의 풍계가 우세하게 나타났음. 풍속은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4.2%, 5~9.9m/s의 바람이 약 31.7%,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1.7%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5.9%, 5.0~9.9m/s의 바람이 약 29.6%, 10m/s 이상의 바람이 1.9%로 나타남.

2013년 8월의 해역별 바람의 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동~남서	73.7	20.8	0.6	0.3
	먼바다	남~남서	61.1	35.3	1.5	0.1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63.7	31.3	1.4	0.4
	먼바다	남동~남	70.4	27.5	0.0	0.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64.6	32.2	1.3	0.0
	먼바다	남서	72.1	20.9	0.1	0.0
제주도	앞바다	서	67.7	31.9	0.4	0.0
	남쪽먼바다	남서~서	31.7	63.2	5.1	0.0
남해동부	앞바다	남서~서	69.9	27.6	0.1	0.0
	먼바다	남서	61.3	36.2	0.7	0.0
동해남부	앞바다	남	54.3	37.0	7.3	0.9
	먼바다	남서	72.0	25.5	0.4	0.0
동해중부	먼바다	남서~서	65.9	31.4	1.5	0.0
전 해상			64.2	31.7	1.5	0.2

※ 해역별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등표기상관측장비(앞바다, 신안해양기상부 포함)와 해양기상부(먼바다)의 관측 자료임.

2013년 8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해상에 2.0m미만의 파고가 약 94.9%로 대체적으로 낮았음. 특히, 동해상은 2.0m 미만의 파고가 96.8%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음. 반면, 다른 해역에 비해 파고가 높았던 해역은 남해와 제주도해상으로 1.0~1.9m의 파고가 각각 37.9%, 40.4%였으며, 2.0m이상의 파고가 각각 6.4%, 18.6%의 비율을 보였음.

해역구분	파고분포(m)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73.7	25.1	1.1	0.1	0.0
남해상	55.7	37.9	6.4	0.0	0.0
제주도해상	41.0	40.4	18.2	0.4	0.0
동해상	86.4	10.4	3.1	0.1	0.0
전 해상	68.3	26.6	5.0	0.1	0.0



▶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은 해상의 집중호우와 안개로 인한 시계제한으로 선박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아 항해할 때는 각별한 주의 필요

집중호우로 어선 전복사고 잇따라

군산해경 전복선박 2척 구조



<2011.08.10. / 일간전북>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해안에 정박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 어창(魚艙)과 하부 기관실로 빗물이 들어가 선박의 무게가 높아지면 표류, 전복,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기상악화 시 수시로 선박을 점검하고 계류줄 등을 보강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집중호우시 안전 항해

여름철은 태풍 및 집중호우, 국지적 안개 등 해상 교통환경이 변화무쌍한 시기여서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여름철 항해하는 선박종사자들은 해상기상정보 입수를 생활화하고, 항해·통신 장비, 구명설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기상악화에 따른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8월은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강풍 및 높은 파도 등 위험기상에 의한 침몰, 좌초, 전복 등의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아 태풍의 영향으로 좌초, 조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변화에 대비한 운항계획 수립해야하고, 소형어선에서는 갑판상에 무리한 적재나 이물질로 방수구가 막혀 태풍 등의 기상악화 시 복원력 감소로 인한 전복사고 주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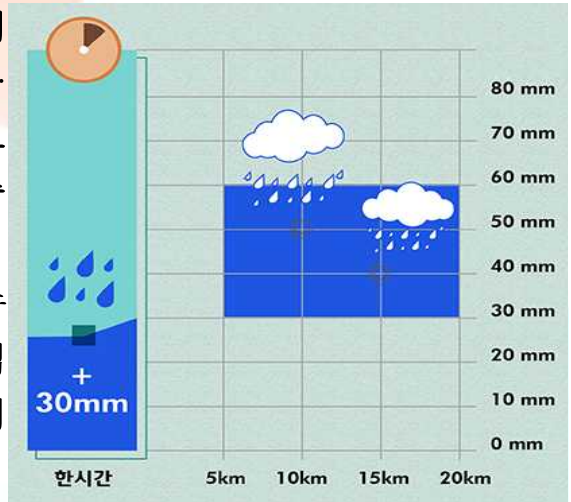
또한 집중호우와 국지적 안개발생 해역 항해 시에는 시계제한항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삼가해야한다.

더불어 8월에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작업장 내 고온, 고열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집중력에 저하에 따른 운항과실로 인한 유조선, 화물선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선박에서는 자체 근무기장 확립이 필요하다.

### ◆ 집중호우의 정의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뜻한다. 시간적·공간적 집중성이 매우 강한 비로,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한다.

집중호우의 지속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반경 10 ~ 20km 정도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보이고, 때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 ◆ 집중호우의 발생원인

집중호우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진 더운 공기가 있을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여름철, 5 ~ 9월에 주로 발생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지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높은 온도, 습한 공기가 바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증기의 양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를 만드는데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덥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30℃를 웃도는 여름철의 높은 온도가 대류의 불안정을 유도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높은 습도를 지닌 공기들이 일사에 의한 대류운동으로 인해 대기 상층부에 적운을 만들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에 의해 적운들이 성장, 발달해 엄청난 비구름을 만들게 된다. 발달한 적란운은 약 1,000 ~ 1,500만 톤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하늘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이 한 곳에 정체하여 계속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가 됩니다. 보통 이와같은 구름의 수명은 1 ~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주변의 기상 조건이 맞으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중호우 시, 해안지역 행동요령

 <p>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세요.</p>	 <p>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p>
 <p>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하세요.</p>	 <p>비상시 연락방법 및 교통이용수단을 확인하세요.</p>
 <p>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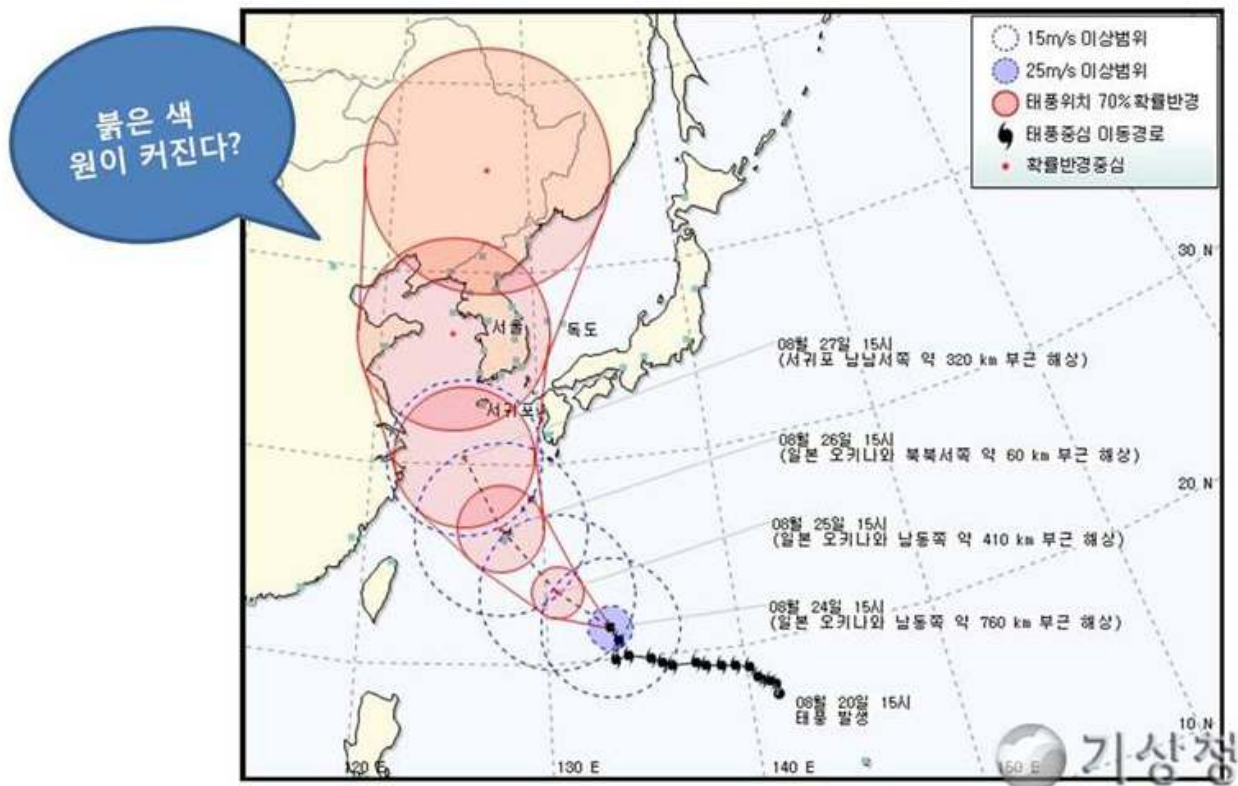
※ 호우정보 참고사이트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모바일웹(m.kma.go.kr) 등을 이용하시면 호우 관련 특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한 전국을 5km 간격의 바둑판 형태로 세분화 해 국민들이 읍면동 단위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동네예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네예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가고자 하는 지역의 강수량 정보를 포함한 날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풍정보, 갈수록 커지는 빨간 원의 정체는?

태풍정보를 보면 붉은 색 원이 날짜가 지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태풍의 중심 위치를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가능성이 많은 범위를 원으로 나타내고, 그 안에 태풍 중심이 위치할 확률을 정하고 있다.

70% 확률 반경(붉은색 원)은 태풍 중심위치가 붉은 색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이 70% 이상인 반경을 의미한다. 태풍의 예보기간이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70% 확률 반경은 예보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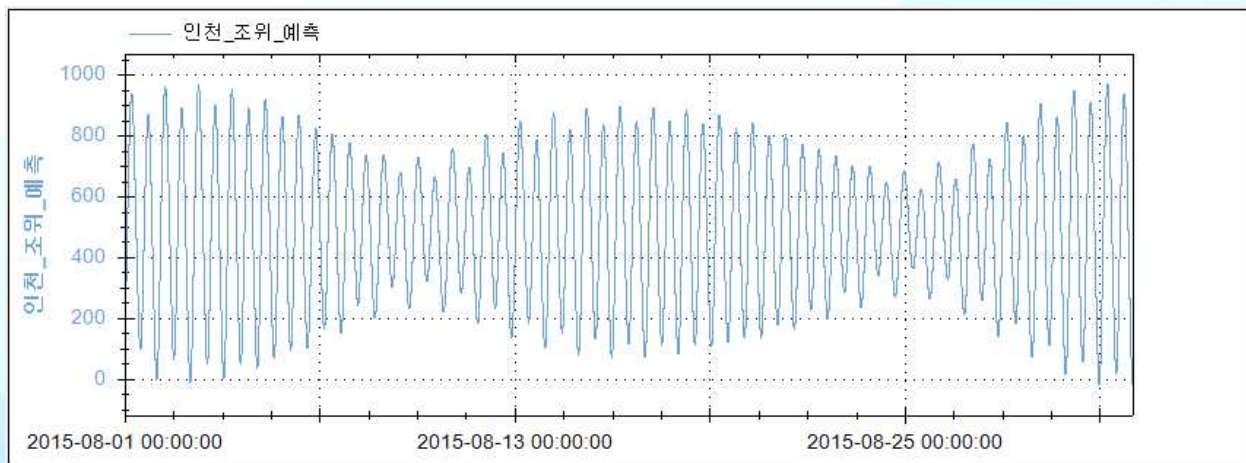
◆ 태풍 발생 시, 항해 중인 선박의 피항 방법

- 풍향이 변하지 않고 폭풍우가 강해지고 있다면, 태풍의 진로 상에 위치하므로 방송 등을 통해 태풍의 예상 진로를 파악하여 태풍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함
- 풍향이 순전하면 위험반원에 위치하며, 이때 바람을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해 태풍역을 벗어난다.
- 풍향이 반전하면 가항반원에 위치하므로, 바람을 우현 선미로 받으면서 항해해 태풍역을 벗어난다.
- 풍속이 증가하면 태풍의 중심이 접근 중이며, 최대풍속이 관측되면 태풍이 바로 옆에 위치,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면 점차 바람이 약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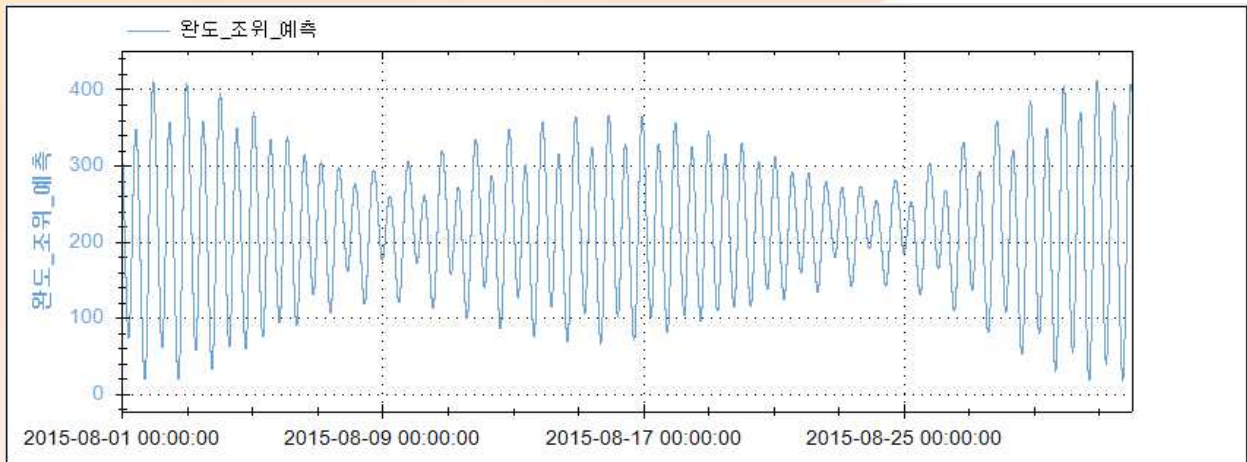
## ▶ 2015년 8월 조석 예보

8월 30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8월 31일에 96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8월 30일에 412 cm, 동해의 포항은 8월 30일에 4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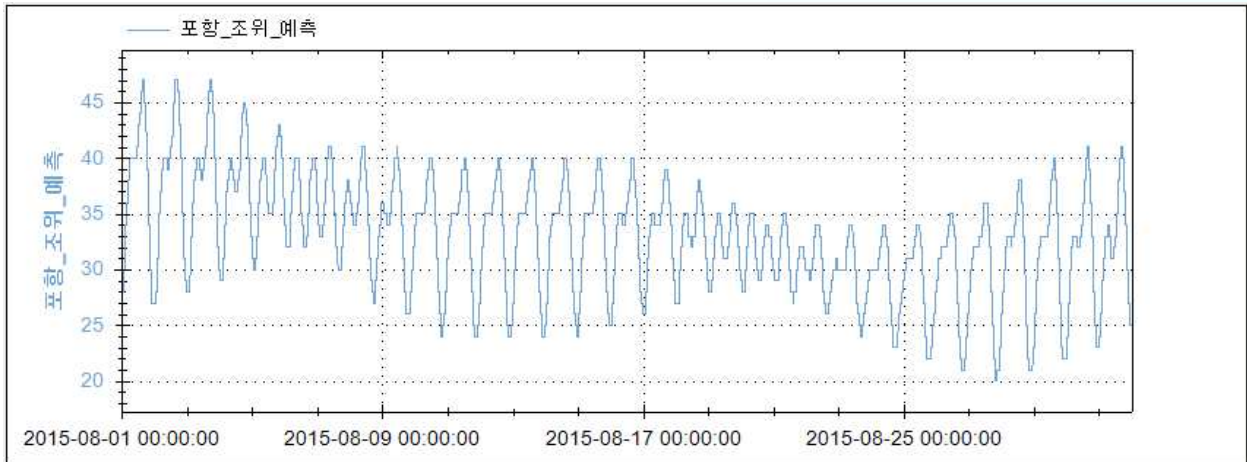
해역	관측소	대조기(삭 8.14)		대조기(망 8.30)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	인 천	894	08.16 05:52	969	08.31 05:42
	안 흥	667	08.16 04:56	729	08.31 04:40
	군 산	696	08.16 04:15	753	09.01 04:40
	목 포	469	08.15 02:50	508	08.31 03:08
남해	완 도	367	08.15 22:52	412	08.30 22:43
	마 산	197	08.15 21:32	216	08.30 21:35
	부 산	134	08.15 21:03	148	08.30 21:02
	제 주	275	08.15 23:33	308	08.30 23:18
동해	포 향	41	08.15 15:35	41	08.30 15:31
	울릉도	37	08.14 14:03	34	08.30 14:35
	속 초	46	08.14 14:33	48	08.30 14:58



< 2015년 8월 인천 조석예보 >



< 2015년 8월 완도 조석예보 >



< 2015년 8월 포항 조석예보 >

## □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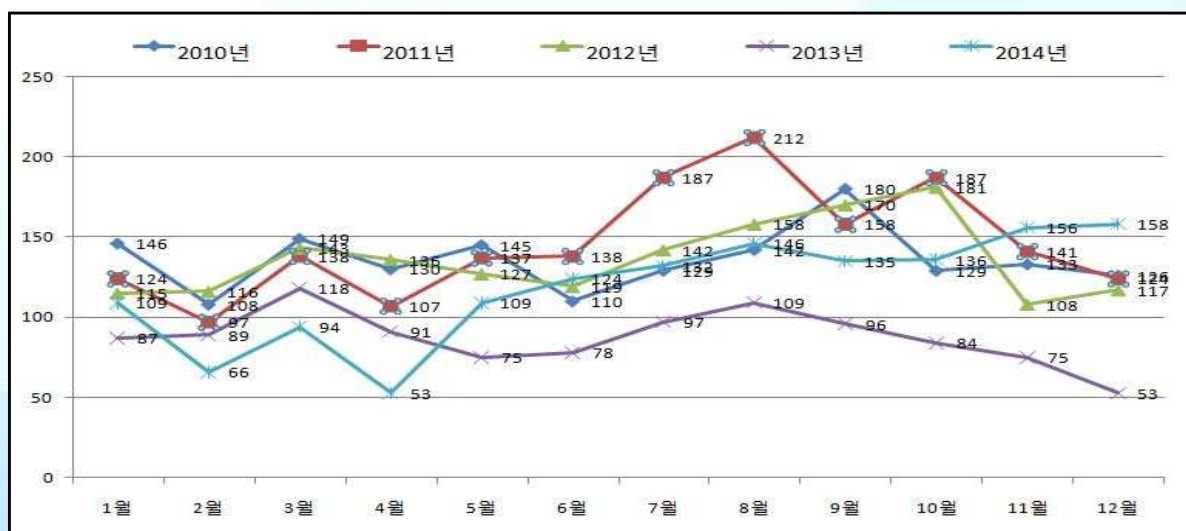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선박사고는 선박 통항량 및 해양 이용객 증가에 따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7월 687건, 8월 767건, 9월 739건, 10월 717건)
-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등 선박 이용객 증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선체 및 기관 안전점검 필요

##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10.1.1 ~ '14.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5척(96.1%) 및 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선원 848명(1.8%)이 사망(631명) · 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479	49,945	7,185	49,070	295	848	631	244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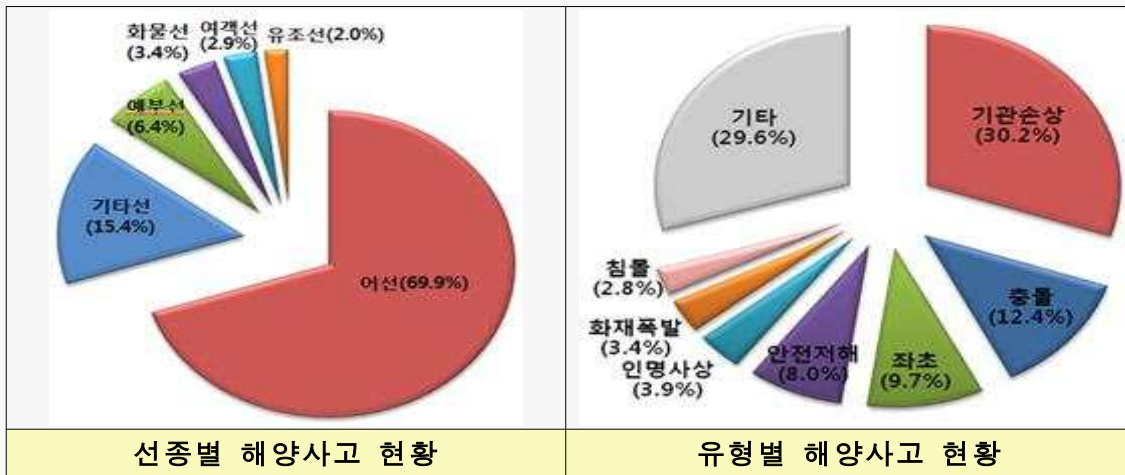
## - 월별 선박사고 현황





**최근 5년간 8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 8월 해양사고는 총 761건(평균 152건) 발생



**8월 해양사고 대비 주안점**(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기상특보 시 인명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
- ◆ 방향키(타) 축은 장기적인 사용과 프로펠러에 감긴 어망줄의 타격에 의한 반복적인 응력이 집중되며, 그에 따라 재질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기적인 관리·점검 필요
- ◆ 지정된 검사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향키(타) 축이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발출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방향키 축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

**해양 안전정보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해양사고 빈발 시기(767척, 연중 제일 많음), 안전 향해 및 조업
  - 해양사고 767척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63.1%인 484척 발생
  - 레저보트(요트)에서의 사고는 24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태풍 내습기 시작으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사고 증가
  - 풍랑주의보 이상 발효된 기상 불량한 해상에서 해양사고 발생
  - 태풍 특보 등으로 인한 사고가 81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하계휴가 시작으로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 피서기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 낚시어선 등 레저선박의 사고 증가

- 태풍 내습기 기상정보 확인, 사전 피항 및 피해예방을 위해 양륙
  - 기상 악화시 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형 어선, 예인선은 기상정보 확인 후 악천후 예상시 무리한 운항 자제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해역 피항, 소형어선은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 결박
  
- 장마철 대비, 화재예방을 위한 선내 전기설비 수시 점검 필요
  - 장기간 장마로 선내 전기절연 상태가 불량하여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특히 FRP 어선은 조업 출어 전 선내 절연상태 점검 확인 필요
  
-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 본격적인 피서철 시기로 많은 국민이 바다를 찾으므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전 여객선의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항규칙 준수
  
- 해수욕장 인근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및 요트 등 사전 피항
  - 바다를 처음으로 찾는 행락객은 피항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해수욕장 인근해역 항해 자제 및 수상오토바이·요트 등에 대해 사전 피항
  
- 안전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 필요
  - 장마로 인한 호우와 잦은 안개, 고온다습하여 선원 집중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조업 및 항해 자제(충분한 휴식 필요)
  - 해양사고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다 사건·사고 긴급전화 122”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구조요청



## 수온 동향

### ★ 8월의 예상 수온

8월의 수온은 수온은 동해·서해가 평년에 비해 1℃ 정도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남해가 1℃ 내외의 낮은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동해 : 20~25℃ 분포
- 남해 : 21~25℃ 분포
- 서해 : 23~28℃ 분포

### ▶ 지난달 수온 분포

7월의 월평균 연안수온은 17.8~24.3℃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7.8~20.3℃, 남해 연안은 19.2~22.2℃, 서해연안은 20.9~24.3℃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7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서해·남해 근해역에서 각각 20~23℃, 22~25℃, 22~24℃로 평년에 비해 각각 1~2℃ 범위의 낮은 수온분포를 보임.



## 어장 분포

### ★ 8월의 어장 분포

8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수온상승과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고등어, 살오징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서해로 유입되는 고등어, 살오징어 등의 내유자원 증가로 서해중남부 해역까지 어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근해안강망어업은 중심어장이 남하하여 연안냉수와 황해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전선대를 따라 서해중남부해역에서 남해서부 일부해역에서 갈치, 참조기, 새우류, 병어, 살오징어 등을 어획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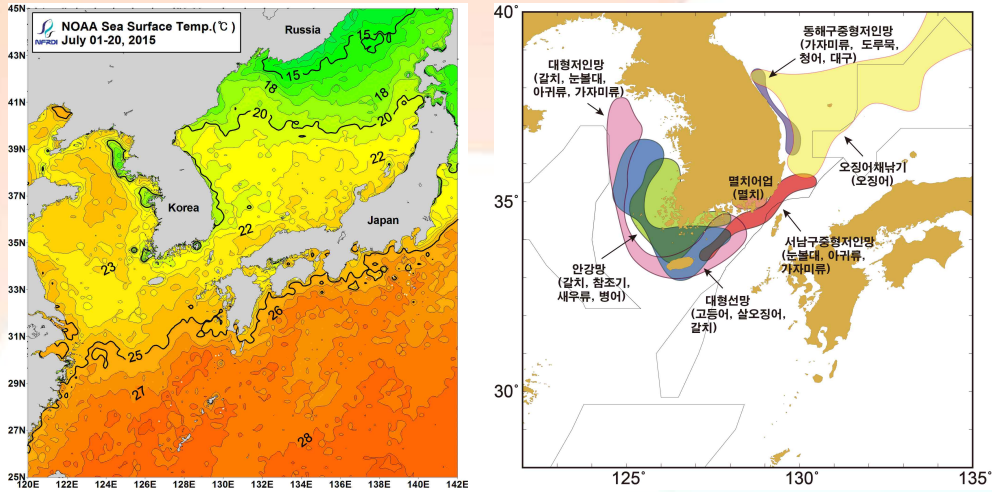


그림 3.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8월)

고 등 어	고등어는 연근해 수온의 상승과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서해중부해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겠으나, 중심어장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발생한 계군이 연안의 저수온을 피해 외해로 북상함에 따라 울릉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나 동해 전연안과 대화퇴해역에도 분포할 것으로 전망. 또한 난류를 타고 서해로 북상한 어군을 대상으로 서해중남부해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다소 부진하거나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멸 치	멸치는 권현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연안역을 중심으로 동해의 울산, 주문진해역과 서해 연안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대비 난자치어의 밀도가 높아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나, 경남과 전남의 조업구역 갈등 문제로 인한 조업여부가 어획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갈 치	갈치는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부터 서해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낮은 산란자원량과 높은 미성어 어획비율로 인한 내유량 감소로 전체적인 어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참 조 기	참조기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사이해역과 서해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밀도가 높지 않아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기 타	꽂치는 월동을 마치고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중남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명태, 말쥐치, 갑오징어는 자원수준이 낮은 상황



【참고자료 1】

8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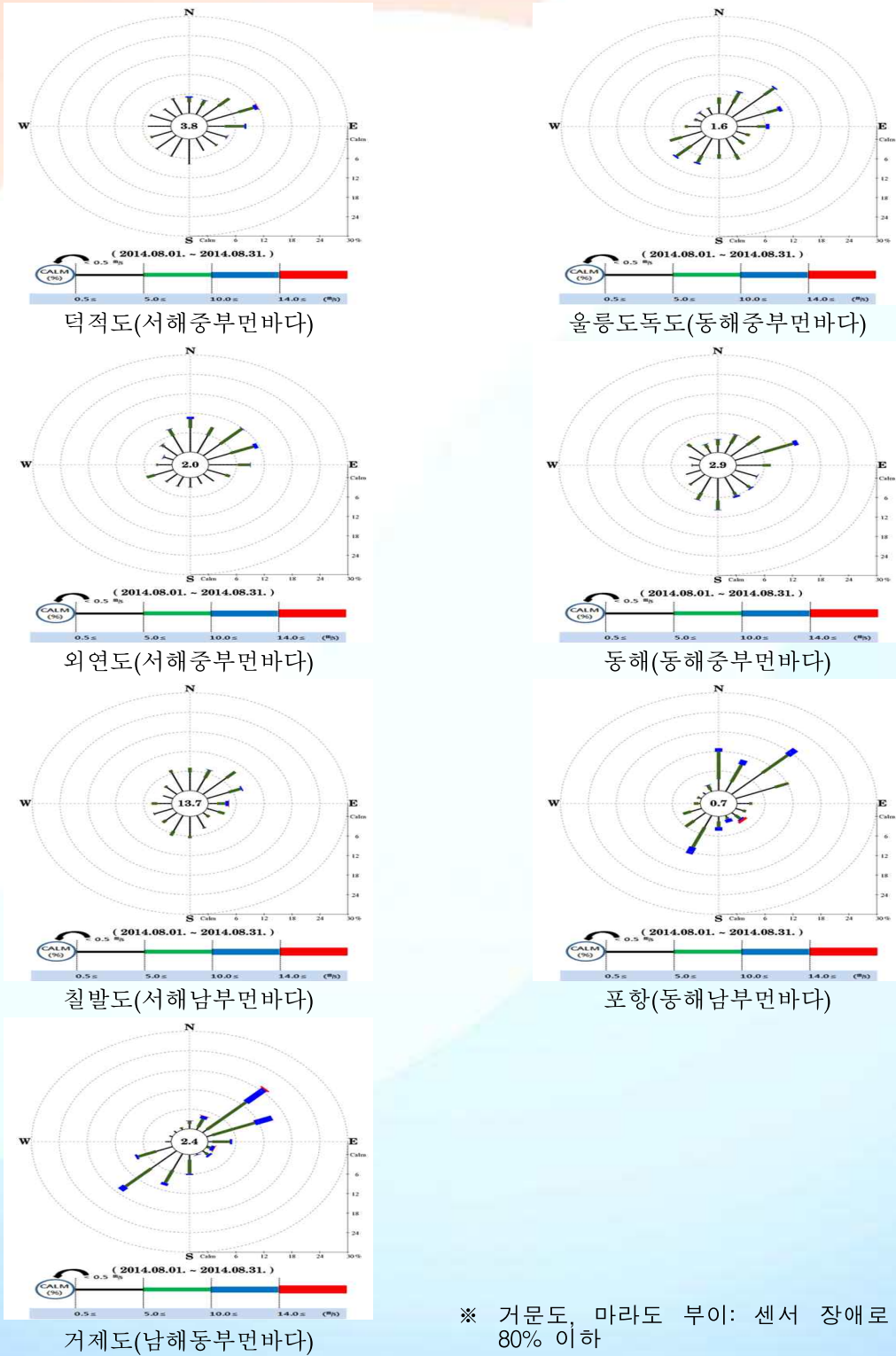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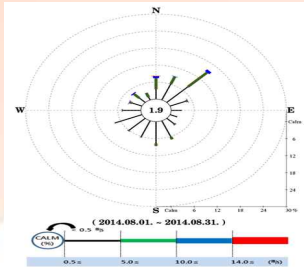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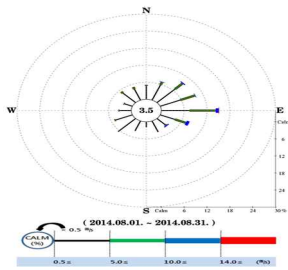


그림 4.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4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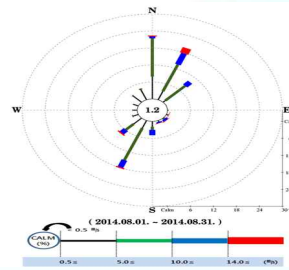
8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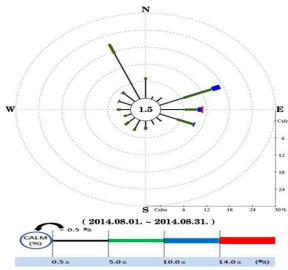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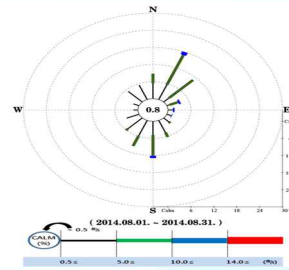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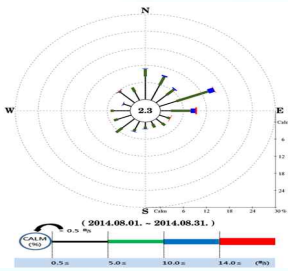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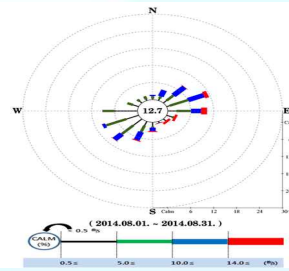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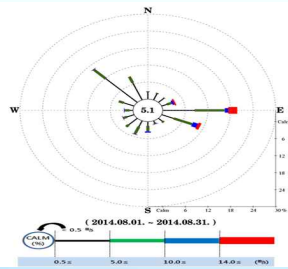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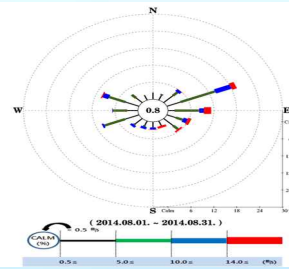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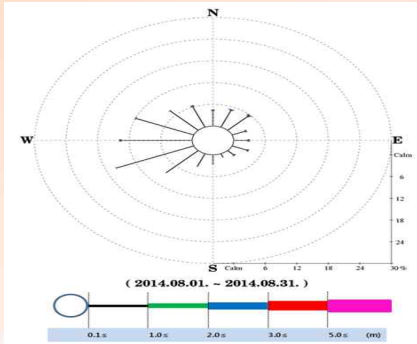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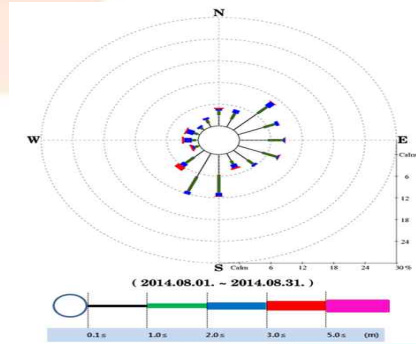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5.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4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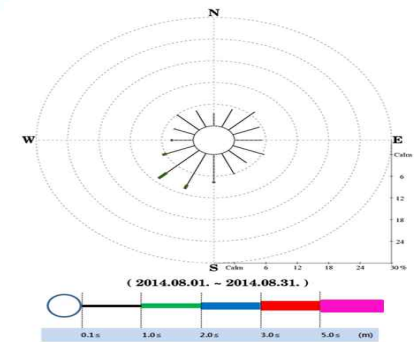
## 8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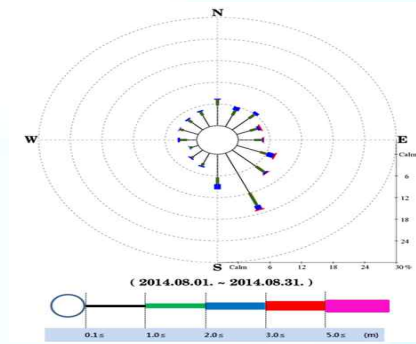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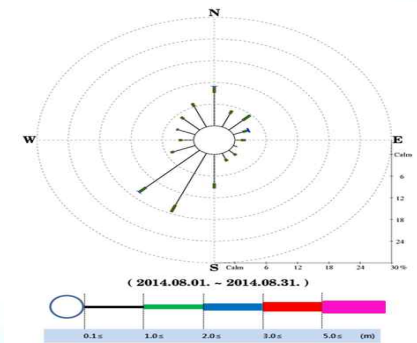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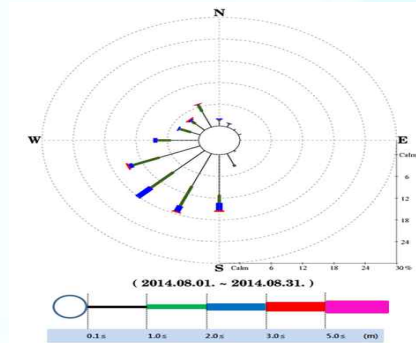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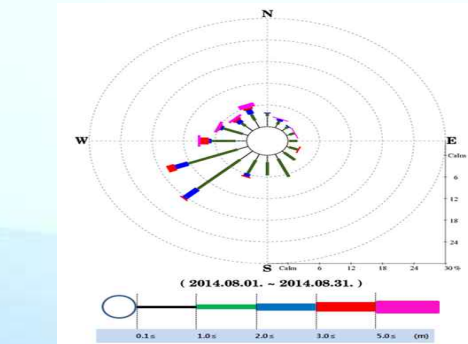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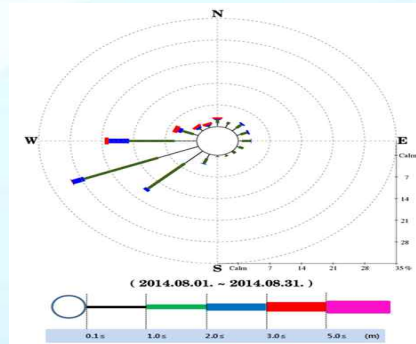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 마라도 부이: 센서 장애로 수집률 80% 이하

그림 6.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향('14년 8월, 파향장미)

**【참고자료 2】**

**▶ 8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3.8.3 11:30	<b>322광*호</b> (안흥, 어선, 53톤, 승선원 9명, FRP, 선령 5년)	화재	선박안전점검 미흡으로 화재발생 ※ 당시기상 : 남서풍, 10~12m/s, 파고 1.5~2m
'13.8.17 21:40	<b>제**호</b> (인천, 레저보트 1.15톤, 승선원 9명, FRP, 선령 15년)	전복	인천 자월도에서 낚시차 출항, 항해 중 높은 파도로 해수가 선외기에 유입되어 표류 중 전복 ※ 당시기상 : 남서풍, 8~10m/s, 파고 1~1.5m

